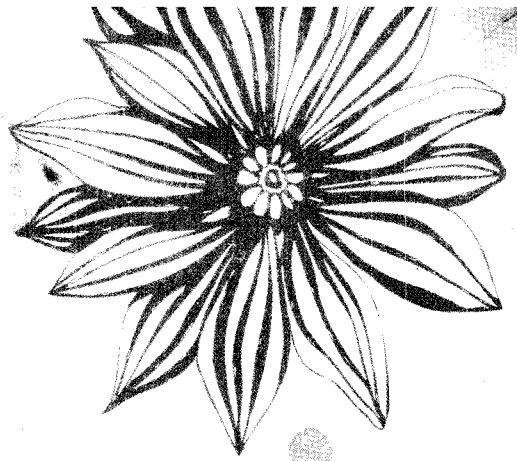


글. 이용구



길고 긴 투병생활의 끝이 보입니다

제가 결핵에 걸린 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보다는 사회생활에 뛰어드는 것이 제 인생의 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1살 젊은 나이에 취직을 하기 위해 보건증을 발급해야만 했고, 그래서 보건소를 찾은 저는 가슴사진을 찍은 후, 결핵이라는 말을 보건소 선생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보건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7개월 정도 약 잘 먹고 밥 잘 먹고 하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병의 호전상태는 굉장히 빨랐고 약에 대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술은 잦게 마시던 터라 술 마시고 약 먹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없고, 별로 아픈 증상도 없어 보건소를 찾아야 할 날에 찾아가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빼먹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전 건강을 되찾았고 1차 치료가 완치될 쯤에 저는 보건소 선생님께 쓰디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을 제대로 복용을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큰 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여성도 보건소에서 치료받고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제대로 안 먹다가 결국은 사망했다는 섬뜩한 예까지 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한귀로 흘려듣고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매일을 똑같이 술을 마시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규칙한 일상을 1년 정도 하던 어느 날 입대영장이 날아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던 저는 군대에 가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소에 다시 찾아가서 결핵을 앓았던 이유로 군대를 연기시킬까 했습니다. 그리하여 1년 만에 보건소를 다시 찾았는데, 다음날 제게 안 좋은 통보가 왔습니다. 재발이 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1차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셨고, 재발 초기에 발견이 됐으니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전 그렇게 군대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우습게도, 결핵이 재발된 것보다 군

대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에만 마냥 신났습니다. 그리고 전 1개월 정도를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그냥 또 예전처럼 자연치유가 되겠거니 생각하며 방심, 또 방심하고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누나네 집에서 밥을 먹다가 쓰러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심하게 구토를 하고 온몸에 기운이 썩 빠졌습니다. 보다 못한 누나가 택시를 태워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간수치가 500까지 올라갔고 약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과 선생님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때까지 뭐했냐고 화를 내시기까지 했습니다.

1인실에 입원을 하고 이때부터 누나의 못난 동생 뒷바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약이 몸에 잘 받아서인지 1주일 만에 균은 떨어졌고 몸은 또 빠른 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렇게 15일 정도 치료를 하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가래가 그치지 않고 계속 끓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찾아가 좀 다른 약이 있으면 바꿔달라고 청하였고 그때 처음으로 2차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성이란 단어도, 균음전, 양성이란 단어도 몰랐고 약도 많이 있지 않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오로지 군대를 연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약을 2차 약으로 바꾸고 난 뒤 가래가 말끔히 사라지자 너무 빠른 호전에 또 방심을 하고 맙니다. 하루는 진료 도중 군대를 연기시키기 위해 진단서 좀 끌어달라고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의사선생님께서 2차 결핵환자는 군대연기가 아니라 군 면제대상이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길고 긴 군대 입영과의 싸움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곤 서울 중앙신체검사장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타지에 가서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살며 일에 매달리다 보니 끼니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차 약제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 고질병 안에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했더라면 2006년에 치료과정이 종결되었을 텐데, 대충 2년만 때우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병원을 찾는 횟수가 적어지고 그냥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시 병원에 찾아가 얼마 안 되는 결핵약 범위 안에서 바꾸어가며 항생제 남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공주 보건소에서, 그 다음은 청주 하나병원에서 세 번째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찾은 곳은 서울 용산 복십자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옮기다 보니 약

은 내성이 올 대로 다 왔고, 예전에 셋째 이모부가 결핵에 걸리셨는데 복십자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된 경험이 있어서 소식을 들으시고는 결핵협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른 병원들보다는 좀 더 많은 항생제들을 갖추고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이번에 완전히 치료를 해야겠다고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더군요. 아파서 몸이 고달프고 지쳐서 찾은 병원인데 또 몸이 조금 좋아지는 듯하자, 약을 또 미루고 한달에 한 번 외야 할 병원을 두 달에 한 번씩 오게 되고 매번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략)

병을 숨기고 회사 일을 했는데 자꾸만 기억력이 저하되고 상사가 시키는 일들을 자꾸만 반복해 잊어버리게 되고 구토에 두통에 입맛도 사라지고 걸음걸이도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좀 버는 방법을 알게 되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할 무렵 저에게 온갖 약제부작용이 찾아와 더 이상 버틸 힘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무사님께 결핵을 앓고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법무사님과 부장님 실장님은 얼굴색이 변하며 절 크게 꾸지람하셨습니다. 그러곤 바로 직원들은 보건소에 가서 모두들 결핵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전 정말 죄를 지은 기분이었고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전염된 직원들은 한 명도 없었고 마음 깊이 사과를 드리고 전 다시 복십자의원을 찾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객담검사를 하고 x-ray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 방으로 들어가서 진료결과를 확인하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만약 오늘 객담결과가 양성이면 더 이상 치료하기가 힘들고 가망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치셨습니다. 수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는 결핵상처가 오른쪽으로 전이가 되어서 수술도 힘들고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 한다고 해도 약이 없어서 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산에 있는 요양원에 소견서를 써줄 테니 거기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요양이나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진작 수술을 했더라면... 진작 국립마산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야닌가 하는 원망도 들었지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의사선생님 말을 무시한 제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병원비가 걱정이 되어서 입원결정을 하기가 망설여졌는데 국립마산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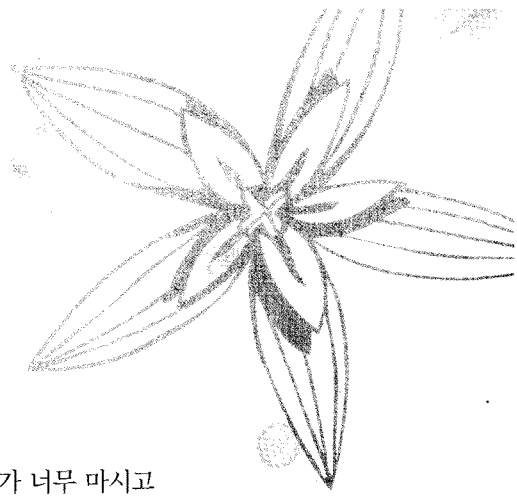
원은 하루입원비가 32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입원비가 거의 무료라고 하더군요. 몸이 너무 쇠약해지고 온갖 부작용으로 아팠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사표는 수리되었고, 수고했던 말 한마디가 저의 퇴직금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4년간의 쓸쓸하고 고된 타지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야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책들과 필기용품을 챙겨 나온 전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부장님께서 “이 대리 책상은 언제나 비워놓을 테니까 힘내고 하루빨리 치료해서 다시 회사로 들어와” 하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1주일 정도를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와 국립마산병원에 가서 입원신청을 했습니다. 3일후 입원하라는 전화가 왔고 어머니와 함께 입원수속을 밟으러 한 번도 안 보지도 찾지도 않았던 낯선 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포심,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2개월 정도만 있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지.

저의 병실은 다계내성 환자들만 있는 5병동. 첫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5병동 주치의는 가망이 없다는 말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자이복스를 먹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2평짜리 주공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어머니께 그런 짐을 지워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겠다는 맘가짐으로 첫날부터 이를 악물고 병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집에 짐이 되기 싫어서 싸고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먹게 되었습니다. 된장, 콩, 두부, 마늘, 시금치... 하루도 안 빼먹고 매 끼니 때마다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가망 없는 내 병마와 싸워 이기려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부터 아무것도 믿지 않던 제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결실이 있어 조금씩 건강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5병동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결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몰랐던 단어들 내성, 감수성, 객담의 음성, 양성, 또한 약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 가지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디가 아프면 자연스레 그 원인까지 알게 되더군요. 또한 본격적인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뉘게 되고 만나며 공유하다보니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원한 지 5년 된 사람, 7년 된 사람 심지어는 10년 된 사람... 마치 여기는 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그 와중에 시원한 콜라가 너무 마시고 싶었습니다. 겨우 1층 자판기에 내려가 콜라를 뽑아 마시고 가만히 서있는데 화가 나더군요. 무작정 주차장에 있는 큰 나무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화가 나서 올라간 것일 뿐인데, 간호과에서는 싸이클로세린 약 부작용으로 판명을 하고 그나마 내성이 없는 싸이클로세린을 뺐습니다.

또다시 절망감에 빠져 식사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 방 환자 한명이 다가와 냉면을 시켜주면서 힘내라고 하더군요. 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병실에 있는 의자를 창문을 향해 던졌습니다. 큰 창문이 쟁그랑 하면서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이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퇴조치가 떨어졌지만 차마 어머니께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 더 기회를 얻어 입원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뒤로도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MRI도 찍어보고 척추골수에서 피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정신과 상담을 권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지만 두통을 없애는 약이 있을 거라는 말에 신경정신과를 찾고서야 두통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중략)

병원에 입원한지 3년 만에 균이 음전이 되어서 저도 이젠 본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본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며 지내는 동안, 2009년 9월 퇴원날짜를 받아두고 기쁨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한 달쯤 앞둔 어느 날 간호과에서 불려서 상담을 하러갔습니다. 이젠 사실대로 얘기해야겠다, 3개월 전부터 결핵균이 다시 나왔고 객담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원을 한달 앞두고 다시 별관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서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균이 안 떨어지는 사람도 나고, 병원에 6년이란 시간동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고, 17만명 중에 10명중 1명도 나고, 퇴원날짜 받아놓고 한달 두고 다시 별관으로 올라온 사람도 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무렵 임상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제에 모든 내성이 온 사람들 상대로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대상자 중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먹지 못했던 자이복스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대신 임상연구소에 제 몸을 협조하는 것이었지요.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었지만 전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거나 생각하고 임상연구자료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임상연구가 시작되었고 2009년 11월부터 자이복스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상 연구를 시작할 무렵 몸이 썩 나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호전속도가 빨랐고 한 달 만에 균이 다시 음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부작용으로 발가락에 마비가 왔는데, 그나마 남들보다 부작용이 덜해서 체중도 이전 85킬로그램까지 나갑니다.

임상 연구를 시작한지 6개월 만에 다시 본관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한 알씩 600미리그램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제 몸은 이제 미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제 폐사진도 3D로 입체 확대해서 관찰한다더군요. 그만큼 관리도 심하고 간섭도 심하고 득이 되는 것도 있고 실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전 모든 것이 다행이고 인생에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자이복스를 투여해서 완전히 균을 음전시키고 퇴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결핵에 안 걸렸더라면 술을 마시고 어떤 사고라도 났을지 모를 일입니다. 워낙 술을 좋아하고, 주사 또한 심했던 저였으니까요. 건강의 소중함, 가족들 소중함을 깨닫고 인생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6살에 입원해서 여기에서 31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생활하던 환우들은 다들 퇴원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하늘이 길을 아직 열어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더 배워야 할 점이 아직 있어서요.

작년부터 주변의 권유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공부인데, 이를 발판 삼아 친구들보다 뒤쳐진 10년을 되찾고자 합니다. 4월이면 시험인데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꼭 합격해서 어머니 얼굴에 눈물자국이 아닌 미소를 띄워드리고, 이 못난 동생 뒷바라지 하는 저의 누나에게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